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7호 【루계 제24490호】 주체10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 설

모든 군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우리 나라에서 군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의 거점이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기본전투단위이다.

강성국가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군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줄수 있다.

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에 발표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지역적거점과 그 역할에 관한 사상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 군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사상들이 집대성되여있는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지난 50년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여온 긍지높은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결론과 농촌테제에서 나라의 농업생산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나날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군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군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을 마련해주신데도 새겨져있고 대홍단군을 비롯한 온 나라 군들을 찾으시며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령도의 자욱마다에도 어려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동해와 서해의 군들이 경쟁바람을 일으켜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력사의 땅 창성군에서 지방공업발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군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군의 역할을 높여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를 발표하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군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력사의 땅 창성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여 모든 군의 농업생산과 지방경제발전, 꾸리기를 비롯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이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해오신 전기간 나라의 모든 군을 제발로 걸어나가는 군으로 만들어 전체 인민이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머나먼 북방의 산골군으로부터 최남단의 벌방군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여나갈수 있는 도약대가 마련되고 지방경제발전의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으며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오늘 모든 군들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구상하신대로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고 강성국가건설시대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고 창성군에서 지방산업공장현대화의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모든 군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과 군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리론을 틀어쥐고 전진하여온 지난 50년 력사의 풍부한 경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오늘 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힘있는 원천으로,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군이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가 있고 비약의 룡마가 있기에 우리의 군들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끝없이 변모될것이다.

현시기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가자고 하여도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군은 사회주의수호의 강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모든 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쌀로써 당중앙을 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갈 불타는 일념에 충만되여있다. 농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쌀이자 사회주의이고 강성국가이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야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도 안아올수 있고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수 있다. 모든 군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갈 때 우리의 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이 고도로 발전된 문화수준과 생활조건을 갖추고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나라이다. 모든 군에서 공장을 하나 짓고 살림집을 하나 일떠세워도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사회주의맛이 나게, 실지 인민들에게 덕을 줄수 있게 일떠세우라는것이 문명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군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로 억세게 키우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모든 군들에 사상교양거점들이 정연하게 꾸려지고 문화회관과 급양시설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군들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창성군처럼 모든 군을 사회주의본태가 살아있고 사회주의향기가 넘쳐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자는것이 우리의 투쟁목표이다. 모든 군이 당의 문명국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할 때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강성국가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군을 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온것처럼 앞으로도 군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령도의 나날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독창적인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군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단위들이 선구자가 되여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자기 사는 고장을 자기 힘으로 훌륭히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군의 주인은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다. 모든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갈 때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사는 고장에 대한 애착심,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자기 군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승전포성을 울려나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모든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원칙,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모든 면에서 자기 군의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는 원칙, 모든 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도록 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군강화발전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모든 군을 자기 힘으로 소리치며 일떠서는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생산과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군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다음해부터는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 농사에 총력을 집중하여 선군시대 만풍년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군에서는 위대한 주체농법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 현시기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실속있게 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그들의 열의를 적극 발양시켜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수확고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군내주민들에게 1차소비품과 여러가지 대중소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고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 인민들의 생활에 실지 도움이 되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자기 군의 제품의 질을 중앙공장의 수준,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

모든 군을 잘 꾸리는 사업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 당정책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사회주의선경으로 그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는 군들을 보면 례외없이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높은 수준에 있으며 모든 일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여나가고있다.

모든 군에서는 군소재지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잘 꾸리며 문화회관과 도서관, 공원을 비롯한 시설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고 시대적미감이 나게 건설하여야 한다. 군소재지와 농촌마을을 꾸리는데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떠나 도시를 본따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들에서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관리를 잘하는데 힘을 넣어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온 나라의 모든 군을 살기 좋은 군으로 일떠세우자면 군책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군책임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구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군이 일떠서는가 앉아뭉개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군책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역할에 달려있다.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군, 뚜렷한 목표와 전개력도 없고 이신작칙의 기풍도 없는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가도 변화가 일어날수 없다. 오늘 날마다 흥하는 고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군으로 변모되여가고있는 화평군, 허천군의 현실은 군책임일군들이 높은 사업의욕을 지니고 앞채를 메고나갈 때 군안의 모든 사업이 잘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군의 책임일군들은 나라의 200분의 1을 맡고있다는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자기 군의 발전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잘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공격형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누구나 부강조국건설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생명력과 견인력은 영원하다.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앞날의 사회에 가서도 군이 차지하는 지위는 달라질수 없으며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라의 모든 군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하루빨리 우리 조국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한 똑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각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제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울분을 터치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을 잊었는가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리봉찬은 오늘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제재》와 《고립봉쇄》책동,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1950년대에 강행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미국은 이때부터 1 0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해왔다. 이러한 미국이 도리여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 시비질하며 핵포기에 대화와 관계개선이 있다고 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궤변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여 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똑바로 새기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선핵포기》요 뭐요 하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는 미당국자들의 떠벌임은 우리 공장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격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정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3대혁명소조원 조경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행동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대화도 있고 관계개선도 있다.》는 넉두리를 계속 늘어놓고있다.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는 우리 더러 맨손 털고 나앉으라는것이며 우리를 무장해제시킨 후 침략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우롱하는 망발이다.

지금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 우리의 《선핵포기》라고 떠벌이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부터 발단된 조선반도의 핵문제의 근원을 미국은 잊었는가.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게 된 핵억제력을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포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하겠으면 하라는것이다. 그만큼 우리 공화국도 그에 대응하여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련속 있게 될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천백번 정당하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계속될수록 반미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신철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누구때문에 발단되였기에 거꾸로 우리보고 《선핵포기》요 뭐요 하는가.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수십년동안 가해온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더러 무장을 놓으라는 식의 강도적요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자위적핵억제력을 우리스스로가 포기하라는것은 존엄높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그 어떤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의 파녁을 미국에 두고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다.

우리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사수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하고있으며 만약 적들이 불질한다면 원쑤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해버릴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정책을 버리라

평성시편의봉사관리소 종합작업반장 김윤필은 우리의 핵은 절대로 미국과의 흥정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군력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철리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다. 결코 그 누구와의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여 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는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한 똑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계속한다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단단히 경을 치게 될것이다.

만약 미국이 각이한 핵타격수단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한다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련속 있게 될것이다. 그때 가서는 미국의 당국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여뜯으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모란봉구역 장현소학교 교원 최히덕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며 침략과 략탈, 학살 등 온갖 인권유린행위를 다하면서도 피발린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하는 미국의 역겨운 행실에 막 신물이 난다.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때문에 통일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가는 우리 교육자들은 해빛밝은 교정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드는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무적의 보검인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감을 가진다. 세상에 핵불뭉치를 휘두르며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맨손 털고 공손히 앉아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공화국에는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단호히 대처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다 있다.

미국이 우리를 해치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수치와 파멸을 계속 맛보게 될것이다. 미국은 돈끼호떼식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리성적인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신의주마이싱공장 직장장 장영화는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기를 쓰고 없애려 하면서 《선핵포기》만이 《관계개선의 조건》이라고 생떼질을 하는데 대해 조소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속심은 뻔하다.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공화국, 시련속에서 반석같이 다져진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자는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다.

돌이켜보라.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침략의 불을 지피려고 발광했지만 얻은것이 무엇인가.

구겨질대로 구겨진 《대국》의 체면, 수치스러운 사죄문보따리밖에 더 있는가. 약동하는 젊음으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기에는 미국이라는 승냥이가 너무 늙고 초췌하며 기운도 빠질대로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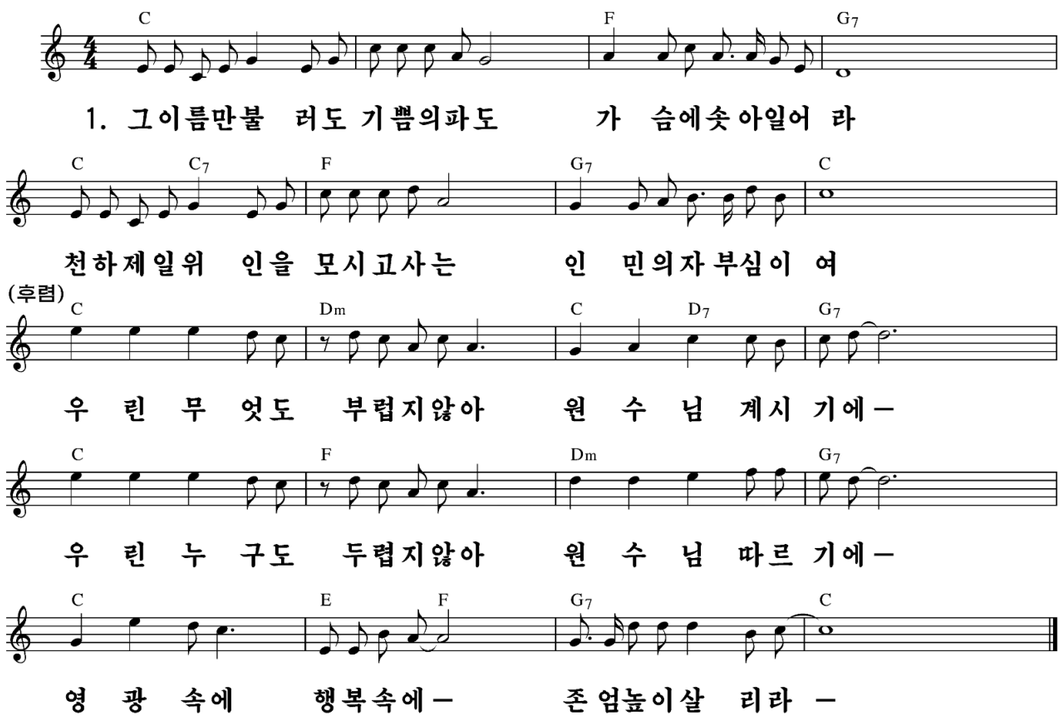
미국이 력사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버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미쳐날뛴다면 차례질것은 종국적멸망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기세로 철광석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재령광산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인 민 의 환 희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2. 사랑으로 가득찬 그 령도에서
더 밝은 래일을 보네
새 전설로 꽃피는 그이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
(후렴)

3. 그 품속에 정으로 뜻으로 뭉친
일심의 힘은 무한타
밝은 태양 빛나는 미래로 가며
승리로 지심 흔들자
(후렴)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는 오늘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관점,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복무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군 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속에 주체100(2011)년이 저물어가던 그해의 마지막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심정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나도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것처럼 그렇게 일해나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슴깊이 새겨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만수교고기상점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가들이 고기상점설계를 하면서 인민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지 않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인민성을 구현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언제인가 완공을 앞둔 한 거리를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숭고한 복무관점과 자세를 지니도록 깨우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식당의 식사칸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 의자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도 어서 앉아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의아한 심정을 안고 의자에 앉아보고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였다. 의자등받이가 직선으로 되여있다보니 불편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하는데 그렇게 앉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을수 있겠는가, 이런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지 않을것이다, 식당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심한 가책속에 잠겨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는 일군들을 잠시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두해전 5월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며 인민의 충복이란 어떤 일군들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현지지도였다.

그날 유희장구내의 도로가 심히 깨지고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난것을 보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포기한포기 풀을 뽑으시며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 일군들과 관리성원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령이 아니라 그 이하이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유희장의 현실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간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당의 의도를 잘 받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경대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과정이 우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을 들어내는 계기, 낡은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어떻게 뛰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깨우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다음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라고,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당일군들이 인민관을 바로가지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한전호에서 싸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해 7월 26일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장군님식인민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주신 친필서한에서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군이 될데 대하여 깊이 새겨주시였다.

두해전의 뜻깊은 광명성절날 당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포시인민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주신 소식이 실려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문제, 애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들을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길이 꽃피워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라는 당부를 담으신 친필의 구절구절에 얼마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친필을 평양산원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써주시였고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큼직하게 새겨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대오에 들어선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라는 경애하는 그이의 친필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자한자 뜻을 담아, 진정을 담아 적어보내신 친필은 일군들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제일의무로 간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대로 중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여가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고 눈물겹게 이야기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가장 위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

◇ 위대한 사상, 불멸의 강령이 최후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날이 갈수록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 누구라 할것없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상을 발동하며 더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쏟아지는 저 비료폭포야말로 사상의 위력이 안아온 정신력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일동무의 말이다.

과연 남들이 해낼수 있다고 한것을 해놓았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끈질긴 봉쇄속에서 그것도 짧은 기간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가스화공정건설을 끝냈으며 오늘과 같이 비료산을 높이높이 쌓고있다.

어찌 흥남뿐이랴.

그 속도와 수준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건설의 불바람속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사상의 위력이 안아온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적이다. 우리의 사상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가장 위력한 제일무기이다.

이것이 어디에서나 울리는 천만의 목소리이다.

◇ 사상은 가장 위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사상이 없이는 당이 태여날수도 존재할수도 없다. 그것은 당이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기때문이다.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도 사상인것이다.

◇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최후승리의 제일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우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학습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첫 공정이다.

당조직들은 학습도 전투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부터 환히 꿰들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언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가장 위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인 사상의 힘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박 봉 주 총 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기업소에서 기술관리, 설비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늘이며 련관부문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이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열린 일군협의회에서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월별, 분기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먼저 6 000t프레스의 가동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강철직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하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 련관단위들에서 원료, 자재를 제때에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지방경제발전의 휘황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지방경제발전의 진로를 명시한것으로 하여 50년이 지난 오늘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경제를 발전시켜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지방경제의 발전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를 위한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로작에는 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이라는 사상과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고리인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그 의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여기에서 기본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로작의 사상리론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모든 군들이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자체의 힘으로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로작의 사상리론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50년간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여왔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온 나라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한평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군들이 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살림살이를 잘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온 나라의 모든 산들에 수림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지난해력사의 땅 창성군을 찾으시여 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성국가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창성군을 본보기로 온 나라의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길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현실은 로작의 사상과 정신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거대한 생명력을 가지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지방공업을 활력있게 전진시키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지방공업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도록 하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지방공업의 발전은 지방의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고 해당 군의 자연경제적특성에 맞게 생산을 늘임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온 나라 모든 군들에는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있다. 이미 마련된 토대들이 은을 내여야 군안의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안정향상시킬수 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라고 하여도 인민생활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인민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공장,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장이야말로 당이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보배공장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군안의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소비품을 생산보장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이 많다. 그런 단위들에서 한결같이 찾아보게 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을 깊이 새기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이야말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군이 자체의 힘으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자력갱생의 교과서이다.

우리 나라는 군마다 자연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실정도 각이하다. 때문에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는 그 어떤 고정된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산을 낀 군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군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벌방지대나 공업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군에서는 그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잘살게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해당 군의 특성에 맞게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모든 군들이 자기 군의 실정에 맞게, 자기 군의 특성이 살아나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깃들어있다.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사회주의락원은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며 누가 가져다주는것도 아니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가 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해나가야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오늘 창성군, 대홍단군, 문천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의 지방산업공장들은 자기 군,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생산을 늘임으로써 생산된 소비품들이 시, 군안의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제시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군이 자체로 살아나가는 군, 자기 힘으로 흥하는 군으로 전변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군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지금은 21세기이며 현시대는 최첨단과학기술에 의하여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시대이다.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앉아뭉개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설수 없다. 언제나 새 세기, 새시대의 높이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여야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지방공업은 중앙공업에 비하여 생산능력이 작기때문에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할수 있는 조건이 더 유리하다.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사고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를 가지고 달라붙는가 하는데 있다. 오늘날 자기 군을 흥하는 고장, 앞서나가는 고장으로 만드는데서 근본비결은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해나가는데 있다. 조건타발, 자재타발만 하면서 앉아서 우는소리나 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외면하며 혁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공업을 추켜세울수 없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없다.

오늘 자기 지방의 흔한 막돌도 보석같이 만들고 버림받던 폐물도 보물로 전환시키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자기의것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지방산업공장들은 례외없이 현대과학기술의 롱마를 타고 비약의 길로 줄달음치는 공장들이다. 우리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지침으로 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투쟁해나갈 때 인민들에게 덕을 주고 자기 지방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보배공장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오늘의 총진군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경제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김균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탁월한 령도, 위대한 전변의 50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 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가 흘렀다.

온 나라 인민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옳게 동원리용한다면 군자체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혁명활동의 갈피마다에는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바쳐오신 애국헌신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한달 남짓이 흘러 자강도의 전천군과 장강군, 만포시를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장군님, 나어린 판매원의 소행도 기특히 여기시며 인민의 참된 봉사일군답게 일을 더 잘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고 군소재지를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답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군들에서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7월에는 평안북도 벽동군의 식료, 제지, 가구, 직물공장 등을 련이어 찾으시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끊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의 차이, 벌방군과 산간군의 차이를 줄이고 내나라, 내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기 위한 천출위인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리여있다.

1990년대에는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과 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뚜렷이 증명되였다.

주체83(1994)년 10월 력사적인 로작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지방의 창발성을 발양시키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동원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로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자력갱생정신으로 짓부시며 온 나라의 모든 시, 군마다에서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주체87(1998)년 1월,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진 난관과 시련을 뚫고 자체로 건설한 강계시와 장강군, 성간군의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씽씽 만가동의 동음을 울리는 중소형발전소들을 시종 만족하게 돌아보시며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전기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는 그들의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중소형발전소건설의 거센 불길속에 자강도뿐아니라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등 강하천이 있는 시, 군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진 중소형발전소건설투쟁은 단순히 자체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만이 아니였다. 이것을 계기로 온 나라의 시, 군마다에서 자기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군의 지방공업과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읍소재지뿐아니라 농촌리들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된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기 시작하였다.

주체91(2002)년 10월 25일 현지지도의 길에 겹쌓인 로고와 진눈까비가 내리는 날씨를 념려하는 일군들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창성에 가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력사의 땅 창성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창성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룩한 성과들을 가는 곳마다에서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창성련석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해나가는데 군살림살이를 잘 꾸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8년후에 또다시 창성땅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지방공업발전의 새로운 불길을 지펴주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의 모든 시, 군들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수 있는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였다.

오늘 력사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 5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에서 자기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하여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지방공업발전과 농업발전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기에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면모는 나날이 달라질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모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세월이 갈수록 영원한 생명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앞길을 명시해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오늘도 로작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모든 군들을 잘 꾸리고 온 나라를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일신하는데서 군들을 잘 꾸리는것이 가지는 문제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동안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는 창성군과 맹산군을 비롯한 본보기적인 군들이 수많이 일떠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론증되였다.

△ 모든 군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강산을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강산을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꾸려 풍치수려하고 백과주렁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모든 지방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릴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만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군들에서 창성군을 본받아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꾸려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는 지금 우리앞에는 보다 휘황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 우리는 모든 군을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잘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 모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지금 창성군과 회령시, 연산군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지방의 공업적토대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자기 고장을 남부럽지 않은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키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데서 앞장선 단위들의 경험을 본받아 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벌방과 산골, 바다를 낀 곳이 서로 다르고 매 고장의 특성이 살아나게 지방건축설계에서부터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며 자체의 건설력량을 잘 꾸리고 지방원료에 의한 건재생산도 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까운 앞날에 모든 군을 남부럽지 않은 무릉도원으로,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전변시켜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에 힘을 집중

곽산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곽산군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이 농촌기술혁명수행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주신 유훈을 높이 받들고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작전을 보다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군일군들이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해 세운 대책을 보면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은것이다.

올해 군에서는 모기르기에서 온실모의 비중을 대폭 늘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었다.

지난해 초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온실에서 벼모를 키워 재배하였는데 정보당 수확고가 높았고 실리가 있었다.

우선 벼모를 키워내는데 종자와 로력, 비료가 적게 들었다. 이 온실모는 2월말, 3월초에 씨뿌리기를 하는데 온실에서 70~80일동안 자래운다. 온실모는 다른 모보다 아지를 많이 치기때문에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가 적게 든다.

이에 기초하여 군일군들은 온실모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많은 농장들에서 온실을 건설하고 모를 키울 상자들을 만들어 씨뿌리기 적기를 보장하게 하였다.

군일군들은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도 중시하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여기에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예비가 있다는것을 알고 여러가지 비료시비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에 중기중점심층시비방법으로 하는것이 소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이것을 받아들이자면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도입하는것이 효과적인 조건에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일군들은 통풍조건, 빛받이조건이 잘 보장되여 정보당 논벼생산량을 늘일수 있게 하는 이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질소비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시비하기 위한 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그 생산을 내밀고있는것도 긍정할만 하다.

일군들은 이미 꾸려놓은 고농도린세균비료생산기지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원료확보를 힘있게 내밀면서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밀고나갔다.

사실 지난해보다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한다는것은 헐치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지난해의 농사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모두가 떨쳐나선다면 필요한 대용비료들을 자체로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다고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초장,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대용린비료와 흙보산비료생산을 다그치면서 부침땅에 미량원소를 보충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세운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적극 지지해주고 해당 당조직들이 책임적으로 떠밀어주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다시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지방공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정력적인 령도로 지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온 지방공업은 1970~1980년대에만도 전국적인 소비품생산액의 절반이상을, 현물지표로는 70%이상을 맡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지방공업발전에 대한 우리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 생활력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공업발전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간다는 자각을 가지고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지금 최단기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환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심장에 새긴 지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다.

—다시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 떨쳐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자!

전국의 그 어느 군에서나 이런 열의로 끓고있다.

창성군에서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울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만도 100여차례나 깃들어있는 땅,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고장이다.

하기에 창성땅에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우리 당에 드리는 창성군 인민들의 고마움의 노래, 보답의 노래인것이다.

자기 고장의 흔한 산열매, 산나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양한 인민소비품을 짱짱 생산하고있는 이들의 긍지와 보람은 얼마나 큰것인가.

올해에만도 지방공업공장들에 보내줄 원료확보에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창성군의 모범따라 모든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방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회령시, 우시군, 연탄군, 회창군, 화평군에서는 오늘도 지방공업공장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방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생산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새로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도 꾸려져 인민소비품의 질이 높아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수준도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연탄군, 우시군과 같이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여 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는 군이 늘어나고있다.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현대화를 실현하였으며 그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타번지고있다.

지방공업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안은 시, 군의 일군들과 지방공업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그 위력을 다시한번 떨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자체의 원료로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창성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5만여정보의 수유나무림 조성

수유나무림을 많이 조성하여 지방공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기름원료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10년간 5만여정보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유기름은 식용으로뿐아니라 고급비누, 칠감생산을 비롯한 공업원료로 리용할수 있다. 그리고 수유기름 1t속에 천연비타민 E가 3.2kg 함유되여있는데 최근에 그 추출기술도 해결되였다고 한다.

서흥군수유나무림사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일군들의 지도밑에 지난 20년동안 이악한 투쟁을 벌려 수유나무의 우량품종을 육종하고 재배기술을 완성하였다. 지금 이곳 사업소에서는 해마다 많은 량의 수유나무열매를 채취하는 한편 나무모생산을 줄기차게 내밀어 각 시, 군의 수유나무림사업소에 보내주고있다.

여러 군에서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없는 산등성이에 다락밭을 형성하고 수유나무림을 조성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기름원천을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수유나무림의 경제적효과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면서 그 조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커가고있다. 시, 군의 책임일군들부터 수유나무림조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적인 비배관리를 위한 조직과 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리원군, 화대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는 수백정보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해놓은데 그치지 않고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기름생산전망을 열어가고있다.

지금 모든 시, 군에서 품을 들여 조성한 수유나무림에 대한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 열매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 기세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수유기름으로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전력수요도 자체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면 군소재지나 농촌마을들에 요구되는 전력을 자체로 능히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지난 수십년간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전기화의 자랑높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갈 불타는 일념안고 중소형발전소건설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자기 고장,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제힘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자각이 비상히 높아지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제손으로 얼마든지 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 또한 백배로 강해졌다.

뜻깊은 올해에도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중소형발전소건설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여 실지 현실에서 그 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강계시와 자성군, 중강군과 초산군, 화평군과 전천군에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강원도에서 원산군민발전소의 건설자들이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방대한 량에 달하는 언제쌓기와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대상건설을 끝내고 총공사량의 90%이상을 해제끼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면서 건설전투를 완강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안남도에서 능력이 큰 북창룡산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물길굴과 취수구, 조압수조와 방수로 등 여러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한데 기초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발전소를 완공할 목표를 내세우고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함경남도 함흥시와 함주군, 량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경원군, 황해북도 수안군과 린산군에서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발전소들을 실리있게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지금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워 수만kW의 발전능력을 더 조성함으로써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공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을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자

중앙동물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동물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원장 천철의 보고에 이어 부원장 신강호, 직장장 천수영, 작업반장 김원국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중앙동물원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변시킬것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있는 동물원의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나라의 재부이며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인 중앙동물원을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동물원개건공사를 무조건 끝낼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서는 건축물들과 개건중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동물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게 시공하고 참관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줄수 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문을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하고 철갑상어못을 훌륭히 꾸려 인민들에게 랑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소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물들의 종수를 늘이고 먹이 및 물보장대책과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원림록화사업을 잘하여 주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을 훌륭히 건설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동물원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우리 당의 은정이 참관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길에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잡도리부터 단단히 하고 떨쳐나

문덕군원료기지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문덕군원료기지사업소는 군적으로도 전투력이 있는 단위로 소문났다. 지난 시기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사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도 원료보장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영농준비정형 하나만 놓고보아도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잡도리를 얼마나 단단히 하고 떨쳐나섰는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의 원료원천을 동원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원료기지를 더 많이 조성하고 지방공업원료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남먼저 사업소정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업소일군들이였다.

새해 첫 전투로 거름실어내기경쟁을 조직한 이들은 한개 작업반씩 맡고 내려가 대중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거름실어내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세차게 타오른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작업반별거름실어내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그 나날 아침일찍 전투현장에 제일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밤이 깊도록 거름을 실어내고 마지막으로 작업장을 뜬 사람들도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였다. 작업장마다에서 짧은 기간에 정보당 30t의 질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았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나래와 활창대, 비닐박막을 비롯한 모판자재준비에 힘을 집중하였다. 또한 이미 마련한 다수확품종의 종자싹틔움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바쁜 속에서도 지배인 정영삼동무는 농기계개조사업을 놓치지 않고 힘있게 내밀었다. 부속품가공을 위해 끼니도 번져가며 뛰고 또 뛰는 일군의 불같은 모습은 종업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만이 아니였다. 초급당일군인 리청석동무는 활창대와 말장감해결을 스스로 맡아안고 종업원들과 멀고 험한 산판에 올라 자신부터가 앞장에서 모판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을 혁신에로 부르는 위력한 선동이였다. 지금 이곳 원료기지사업소의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영농준비를 결속한데 이어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올해 봄철기후는 례년에 없이 불리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가을에 와서 보라!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배심을 안고 모든 농사일을 걸싸게 해제끼고있다.

특파기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이 끓는다

씨뿌리기준비에서 중시하고 내민 문제

연안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연안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당면한 씨뿌리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씨뿌리기준비를 잘하는데서 중시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씨뿌리기준비에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농장들에서 앞선 방법을 받아들여 모판재료의 질을 지난 시기보다 높이도록 한것이였다.

이들은 청화협동농장의 경험을 놓고 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최근년간 이 농장에서는 모기르기를 잘하여 튼튼한 모를 키워내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농장에 나가 료해한데 의하면 그 비결은 모판재료준비를 잘한데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종전에 토양개량제로만 쓰던 린회토와 같은 광물질을 다른 재료들과 섞어 모판밑에 깔아주고 복토재료로도 리용한것이였다. 여러가지 원소가 포함되여있는 광물질을 적극 리용한 결과 모판재료의 질이 높아져 그전보다 모를 더 튼튼하게 키워낼수 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은 한걸음 더 들어가 이 농장에서 모판재료의 질을 종전보다 높이는데 힘을 넣게 된 사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농장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을 면밀히 분석해보던 과정에 한가지 교훈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농장의 실정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논벼생육후반기의 뿌리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더 잘 세워야 한다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물론 비료시비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모판단계에서 모를 잘 키워내야 하였다.

—튼튼한 모를 키워낼수 있는 결정적고리는 모판재료준비를 질적으로 해놓는데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대중과 지혜를 합쳐가며 여러가지 원소들이 포함된 광물질을 리용하여 모판재료준비를 더 질적으로 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갔다. 이 농장에서 료해한 자료를 놓고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군의 자연기후조건과 지대적특성을 놓고 볼 때 논벼생육후반기 뿌리기능을 높여주는것은 어느 농장에서나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였다. 때문에 이 농장의 경험은 일반화할 가치가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군일군들의 모임에 상정되였으며 모든 농장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장들에 나가 모판재료준비를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기술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때 이들이 놓치지 않은것이 있었다. 농장들에서 반드시 질좋은 광물질을 찾아 모판재료준비에 리용하도록 한 문제였다.

린회토를 비롯한 광물질은 군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하지만 그 질은 하나같지 않았다. 때문에 군에서는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밑에 그 질을 분석하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실례로 한 농장안에서도 어느 작업반구역에 있는 린회토는 다른 곳의것보다 질이 좋다, 토양에 카리와 규소성분들을 보충해주려면 어느 농장지역에 매장된 광물질을 많이 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리용방법까지 명백하게 밝혀놓았다.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그 자료에 기초하여 질좋은 광물질을 찾아 리용함으로써 토지개량은 물론 모판재료준비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군에서 그것을 리용하여 대용비료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일군들이 씨뿌리기적기보장을 위한 대책을 앞질러 기동적으로 세운것도 경험적이다.

어느 한 저수지의 보수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보수작업을 하려면 저수지의 물을 뽑아야 했다. 능력이 큰 저수지에 물을 다시 채우려면 적지 않은 기일이 요구되였다. 그 기간과 씨뿌리기적기를 놓고 타산해보던 일군들은 심중해졌다.

씨뿌리기철에 물문제가 긴장하게 제기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 문제를 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토론과정에 일군들이 찾은 결론은 하나였다. 물길정리를 앞당겨 하여 저수지에 물을 빨리 끌어들이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농장들에 나가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물길정리를 빨리 하여야 씨뿌리기를 제철에 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거름생산과 운반을 비롯한 농사차비의 여러 공정을 수행하면서 수십km의 물길정리를 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나가며 두텁게 얼어붙은 물길바닥을 파내고 좁아진 곳을 넓혀나갔다. 파낸 흙을 지력을 높이기 위해 포전에 실어내는 일도 동시에 하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이들은 짧은 기간에 지난해보다 수십일 앞당겨 물길정리를 끝냈다.

씨뿌리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일군들은 조국수호열의로 더욱 가슴끓이며 기술지도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논밭갈이 50%계선 돌파

봉산군에서

멸적의 기상 차넘치는 봉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여러가지 갈이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논밭갈이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적인 논밭갈이실적이 50%계선을 넘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에 모를 박아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논밭갈이를 제때에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군일군들은 대중속에 한해농사에서 논밭갈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모든 갈이수단들을 집중하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갈이준비를 빈틈없이 한데 기초하여 땅이 녹는족족 봄갈이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청계협동농장에서 논갈이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분발해나섰다. 알곡증산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일 일념안고 떨쳐나선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앞선 갈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경쟁적으로 매일 많은 면적의 논을 갈아엎었다. 읍, 가촌, 묘송, 지탑협동농장들에서도 뜨락또르들에 만부하를 걸어 논갈이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운전수들은 미리 마련해놓은 예비부속품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논갈이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구읍, 독정협동농장들에서 갈이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발갈이실적을 높이였다. 오봉, 청룡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도 발갈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본사기자 김창길

종자처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씨뿌리기의 첫 공정인 종자처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야 튼튼한 모를 키워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열의를 안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여 농사를 잘 지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운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종자처리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품종별시험을 통해 높은 싹틔우기률을 보장할수 있게 고른 종자들에 대한 처리를 잘하는데서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준비를 잘해놓은데 이어 종자해빛말리우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초급일군들은 종자처리를 맡은 농장원들에게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해 제때에 알려주면서 그들이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종자처리의 모든 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씨뿌리기준비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구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부침땅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예견성있게

구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부침땅을 최대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던 때였다. 여러가지 문제가 론의된 자리에서 경영위원장 리봉룡동무는 부침땅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이것은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군의 실정에서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였다. 그는 지난 시기 일부 농장들에서 받아들여 덕을 본 겹재배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지난해 대풍협동농장에서는 한포전에 감자와 강냉이를 두줄모아 심는 재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앞그루로 심은 감자면적에 뒤그루로 콩, 들깨를 심고 감자를 심은 옆이랑에는 올품종의 강냉이를 심었다. 그리고 올강냉이를 수확하고 그 뒤그루로 가을 남새를 심었다.

이렇게 키낮은작물과 키큰작물을 이랑건너 심으니 해빛과 통풍조건 등 변두리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었으며 토지리용률은 2배이상 늘어났다. 이 농장만이 아니였다.

이랑너비를 80㎝로 정하고 겹재배를 받아들인 송호협동농장의 경우도 수확고가 쑥 올라갔다. …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침땅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는 겹재배방법의 우월성을 다시금 새긴 일군들은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제기해나섰다.

경영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겹재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모든 농장일군들로부터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겹재배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민것이다.

지난 시기 보여주기사업은 중요영농공정때에만 조직하였는데 참가성원들대부분이 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이였다. 일군들은 이런 관례를 깨고 농장들에 내려가 보여주기사업을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농장원들이 보여주기사업에 직접 참가하니 실효가 더욱 컸다. 이 사업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과학기술지식만을 주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집단주의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일 적지를 토양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포전을 돌아보면서 지력과 해비침률이 높고 통풍조건이 좋은 포전들을 두벌, 세벌농사포전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올해에 군적으로 강냉이면적의 80%에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겹재배면적이 대폭 늘어난데 맞게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이 포전들에 필요한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해주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군적으로 더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가 생산되고 모판자재도 100% 확보되였다.

일군들은 또한 밭갈이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낯을 돌렸다. 그들은 군농기구공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4 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보습과 농기구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결과 농장벌마다에서는 밭갈이가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일군들이 앞장서서 부침땅의 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쥐고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이 군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정성일

모판만들기를 앞당겨 끝낸 비결

단천시 오봉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로 하려면 뜨락또르와 함께 짐을 싣고부리는기계,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비료치는기계, 가을걷이하는기계, 낟알터는기계를 비롯하여 영농공정별로 모든 일을 기계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천시 오봉협동농장에서 벼모판만드는 방법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농장에서는 모판만들기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짧은 기간에 끝냈다. 이 성과의 비결은 필요한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만들기를 한데 있다.

일군들이 봄철영농공정수행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던 때였다. 일군들은 여기에 필요한 로력과 영농물자, 시간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이들은 모판만들기에 드는 로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을 돌리였다.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 하던 이들은 농기계를 만들어 리용하여 모판만들기를 할것을 결심하였다.

흙을 째고 두둑을 형성하며 두둑면의 수평고루기까지 동시에 할수 있는 농기계를 만들어 리용하면 여러가지 영농공정이 겹치는 시기 로력의 긴장성을 원만히 풀수 있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일군들은 기계화작업반원들과 함께 즉시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도 현장에 나와 실태를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그리하여 끝내 농기계를 만들게 되였다.

이 농기계는 별로 신비한것이 없으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다 만들수 있다. 흙을 떠올리고 부스러뜨리는 장치, 수평고루기장치 등의 구조를 갖춘 이 농기계를 리용하면 모판자리를 갈고 써레치는 공정이 없이 모판을 만들수 있다. 흙을 떠올려 모판들사이 다님길을 내며 두둑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흙을 두둑면우에 펴놓고 수평고루기까지 하여 모판을 만들게 되여있다.

지난 시기의 방법으로 모판자리준비를 하면 기일이 수십일 걸리고 많은 기름을 써야 하였다. 하지만 이 농기계로는 그런 소비가 없이 모판을 만들수 있다.

이 농기계를 설치한 한대의 뜨락또르로 짧은 기간에 농장에 필요한 모판을 다 만들었다. 모판을 만든 다음 농장원들은 여기에 진거름물을 부었다.

농장에서는 이처럼 모판만드는 일을 기계화함으로써 많은 영농물자와 시간을 절약하면서 씨뿌리기적기를 보장하고 봄철영농공정수행에 필요한 큰 로력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일념안고 씨뿌리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력포구역 소삼정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벼모판종합영양제생산을 다그친다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씨뿌리기를 앞둔 요즘 벼모판종합영양제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3월 17일현재 벼모판종합영양제생산량은 3 700여t에 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벼모판종합영양제는 여러가지 영양성분과 살균, 산도조절제들을 혼합하여 만든 벼모판전용비료로서 벼모를 튼튼하게 키우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

내각과 농업성의 일군들이 공장에 자주 내려와 벼모판종합영양제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홍현길동무는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더 높은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공장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매일 160t의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책임기사와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농업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모든 원료들의 혼합비률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로동자들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질좋은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생산하는데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씨뿌리기가 시작되기 전에 질좋은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더 많이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보내줄 일념으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 련일 진행

【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16일과 17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장소들은 천만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랑만을 안겨주는 뜻깊은 무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끓어넘치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성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한 선군시대의 장군찬가 《조선의 힘》이 합창으로 울려퍼졌다.

장내를 진감하는 노래는 관중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힘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무대에는 녀성4중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대화시 《최고사령부 지붕아래 우리 삽니다》, 선동시극 《신념의 전통을 이어》, 실화이야기 《위대한 전우》, 극중창 《우리를 본다》, 토막극 《훈련장의 두 분대장》, 녀성독창과 어은금병창 《조국찬가》, 극선동 《원한의 수직갱》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인민군 군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 당복, 최고사령관복과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창조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총대병사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준 종목들은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출연자들은 합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남성독창과 방창 《단숨에》, 녀성2중창 《군민아리랑》, 기타병창 《해안포병의 노래》 등의 종목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억센 기상을 박력있고 경쾌한 선률과 풍부한 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혁명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며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감명깊이 형상한 녀성5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녀성중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등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과 관람자들이 마음과 숨결을 맞추어 함께 부르는 노래와 우렁찬 박수갈채로 하여 공연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였다.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김정은**혁명강군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전체 장병들은 전군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총대로 결사옹위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었다.

공로자들이 받아안은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든번째의 생일을 맞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교원인 교수, 박사 강정백과 로력영웅이며 인민교원인 룡강군 애원고급중학교 전 교장 리정순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막벌이군의 가정에서 태여난 강정백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는 따사로운 품에 안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안고 수십년간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 나날 10여개의 학과목을 개척하고 많은 교과서, 참고서를 집필하였으며 수십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해방전 빈농가정에서 태여나 버림받던 리정순도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을 누리며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공화국의 첫 인민교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다.

교원들을 후대교육을 책임진 직업적혁명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안고 그는 수십년간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수수한 농촌학교를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전국의 본보기학교로 꾸리고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학교로 자랑떨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공로자들과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병원에서—
짜고들고있다.
먼거리이료봉사를 통한 치료협의회를
—삼지연군 제1인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장하다! 《산정의 수리개》들

송전선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

먼길을 온 사람들이다. 먼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하는 곳은 높은 산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 《산정의 수리개》들이라고 한다.

아득한 철탑우에서 교예사마냥 자유롭게 오가며 일손을 놀리는 미더운 송전선건설자들, 담차고 재치있는 그 모습에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다면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경탄의 목소리도 터치며 은근히 왼심을 쓰는 송전선건설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송전선건설사업소 앞마당에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날 대오가 정렬해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지배인 최성우동무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해마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맞기를 그 몇번이던가. 돌이켜보면 전화의 나날 나라의 외아들 기업소로 첫 자욱을 뗀 그날로부터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수백번은 더 되였으리라. 이제 떠나면 서너달 아니 반년이상은 정든 집 아래목을 잊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였다.

최성우동무는 대렬을 짓고 선 종업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한명씩 더듬어보았다.

김철민, 방철진, 안철, 정철민, 계철남, 한청일, 황성민, 전진혁, 홍철범, 오남일, 김명진, 장영민, 한철민, 원명진, 김명진, 김상혁…

건설장에선 이름난 혁신자들이요 무대우에선 명가수, 명배우에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경기장에 들어서서도 막힘이 없는 끌끌한 제대군인들이였다.

한명한명 정깊은 얼굴들을 일별하고난 그는 힘주어 말했다.

《장진땅에서 송전선건설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이였소. 부모들이 이어온 애국의 자욱을 오늘은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무들, 이번 전투에서도 〈산정의 수리개〉의 용맹과 기개를 남김없이 떨칩시다.》

《알았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이 한마디의 대답과 함께 대오는 떠났다. 깊은 산골짜기와 험한 령이 기다리는 새로운 전구로.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들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은 일제히 기초굴착에 진입하였다. 건설의 메아리가 한적하던 산촌을 뒤흔들었다.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뜯어내고 바위를 함마와 정대로 까내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하루가 다르게 기초구뎅이들이 늘어나고 철탑들이 솟아올랐다.

건설자들의 작업모습을 여겨보면 철탑건설장의 주변마을사람들은 저마다 입들이 벌어졌다. 박은철동무를 비롯한 건설자들이 곡괭이와 함마를 휘두르는품도 다기찼지만 키를 솟구며 일어서는 아찔한 철탑꼭대기에서 잽싸게 일손을 놀리며 서로 말도 건네고 웃음도 짓는 배짱과 담은 얼마나 큰것인가.

감탄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숙소주변의 빈땅을 일구어 남새를 심고 가꾸는것을 보면 알뜰한 농사군의 일솜씨그대로였고 아침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활을 절도있고 패기있게 진행해나가는것이 혁명의 군복을 입고있던 그때와 꼭같았다. 제대군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더니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저런 착실한 살림군에게 누군들 정이 가지 않겠는가고 마을처녀들은 그들대로 은근히 속마음들을 나누었다.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송전선건설자들의 숙소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아늑한 보금자리 바라지 않네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네
우리가 하는 일 누가 몰라도
가슴속엔 크나큰 영예가 있네
…

노래도 있고 랑만도 넘치는 산정에서의 생활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헐치 않았다.

암반에 발파구멍을 뚫던 어느날이였다.

암반이 얼마나 굳은지 뾰족하던 정끝이 모두 볼품없이 되고 말았다. 부족되는 정대를 벼려오자면 수십리나 떨어진 현장지휘부에 가야 했다.

주변을 둘러보던 김신국동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나무불로 정대를 벼립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맨손으로 작탄을 만들어내지 않았소.》

그의 말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옳습니다. 이쯤한 난관앞에 주저한다면 우리가 무슨 〈산정의 수리개〉들이겠습니까.》

정말 그랬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송전선건설사업소의 자랑스러운 바통이다. 지난 시기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관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각종 규격의 관들을 생산하여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하여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던것이다.

잠시후 우등불이 타올랐다. 건설자들은 나무불에 달구어 벼린 정대들로 발파구멍을 뚫고 발파를 진행하여 그날 계획했던 기초굴착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철탑의 위치를 옮겨야 할 정황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하늘에서는 진눈까비가 흩날리고있었다. 이런 불리한 날씨에 철탑에 올라가 해체작업을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였다.

남먼저 철탑으로 오르려는 김광수동무의 앞을 전영광동무와 건설자들이 막아섰다.

《동문 안되오.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전영광동무가 하려는 다음말을 김광수동무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결혼한지 한주일만에 안해의 곁을 떠나온 그였다. 동지들의 마음이 고마왔다. 그렇다고 물러설수는 없었다.

《제가 왜 동지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안해도 결코 뒤걸음질치는 남편은 바라지 않을겁니다. 결혼할 때 저의 안해가 뭐랬는지 압니까. 자기는 폭풍우도 두려움없이 용감히 맞받아나가는 억센 수리개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전영광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의 허리에 안전바줄을 감아주었다.

창공을 날아예는 수리개와도 같이 굴할줄 모르는 패기와 열정을 지닌 사람들,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기에 송전선건설자들의 동지적우정도 남달리 깊고 뜨거운것이였다.

송전선건설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가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공사를 끝마친 다음 철탑꼭대기에 올라가보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매 시각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량심의 채점을 한다.

무섭게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차오르는 물을 퍼내며 기초구뎅이를 한치한치 파내려갈 때에도,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얼어드는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형강을 맞추고 나사를 채울 때에도 그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천년보증, 만년책임이라는 깨끗한 량심의 언약만을 다지였다.

김현철동무는 철탑조립이 끝날 때면 슬며시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군 하였다. 안해의 사진이였다. 사진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안해에게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였다.

(여보, 우린 오늘 조국땅우에 또 한기의 철탑을 세웠소. 난 매일 당신의 사진을 품고 산정에 오르고 철탑을 세워나가오. 떠나올 때 당신은 말했지. 집걱정은 하지 말고 일을 잘해서 혁신자가 되라고, 그것이 가정에 바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자기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알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는 그 마음이 나에겐 더없이 귀중하오. 바로 그것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서로가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우리 송전선건설자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이요.)

이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속삭임이 어데 있으랴.

사랑을 해도 남들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생활을 꾸려도 앞날에 대한 희열과 량만, 깨끗한 량심과 헌신으로, 긍지로 넘치고 후대들앞에 부끄럼없을 참되고 값높은 생활을 해나가는것이 바로 송전선건설자들의 속깊은 사랑이며 생활의 정서이기도 하였다.

하다면 푸르른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사나운 바람을 길동무로 여기며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조국의 산과 들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송전선건설자들이 가슴속에 안고 사는 고결한 지향은 무엇이였던가.

언제인가 철탑우에서 한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계광일동무에게 작업반장 차영철동무가 슬며시 물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오? 어머니에게서 또 련락이 온 모양이구만. 며칠 시간을 받고 집에 다녀오지 않겠소? 하루빨리 며느리를 맞고싶어하는 어머니생각도…》

차영철동무는 그만 말을 중둥무이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를 돌아보는 계광일동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었던것이다.

《저기 보이는 고속도로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지 않을가요. 혹 그런 영광의 순간이 온다면 반장동지, 한점 흠없는 철탑을 보여드려야겠는데…》

누구보다 담이 큰 사나이들, 어찌 보면 가는 비, 오는 눈바람에 성격마저 거칠어진듯싶은 이들의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그리움은 얼마나 순결한것인가. 그래서였다. 불밝은 유보도를 거닐며 청춘의 사랑을 한껏 속삭이고싶은 열망을 묵묵히 철탑우에 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사는것은,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끝없이 이어가는 송전선과 함께 인생의 리정표를 새기는것은.

지난 2월 이들은 마지막철탑을 성과적으로 조립하였다. 철탑우에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환희속에 바라보는 그들의 심장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라.

* *

얼마전 우리가 송전선건설사업소 당일군의 방에 찾아갔을 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느 한 사업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송전선건설사업소에 끌끌한 청년들이 많다기에 욕심이 나서 그럽니다. 우리 사업소에 인물 잘나고 마음착한 처녀들이 있는데 서로 사돈을 맺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받던 서성철동무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롱말을 건넸었다.

《그런데 우리 〈수리개〉들의 눈이 여간만 높지 않습니다.》

《철탑우에서 내려다보는 눈인데 어련하겠습니까. 그만큼 통이 크고 대범하겠지요. 우리도 아무한테나 처녀들을 맡기진 않는답니다.》

호탕하게 울리는 웃음소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남다른 은정속에 사는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산정의 수리개》들을 어찌 탐내고 따르지 않겠는가. 그들의 더 밝은 앞날을 그려보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본사기자 조경철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 받들어

각 도, 시, 군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각 도, 시, 군책임일군들이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잘 돌봐주고있다.

량강도의 책임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해빛같은 사랑이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도에서는 일군들속에 온 나라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앞세우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도에서는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를 비롯한 문화용품들과 수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보내주고 중등학원교사건물지붕을 교체해준것을 비롯하여 원아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었다.

강원도의 책임일군들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은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원아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원아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일군들의 응당한 임무이며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륜리도덕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벌리고있다.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일군들의 관심속에서 지난해 원산육아원에 원아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많은 식료품들이 보장된데 이어 육아원과 애육원을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고 난방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취해졌다.

원아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훌륭히 준비시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데서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도 앞장서고있다.

도에서는 육아원, 애육원, 중등학원 원아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황주군을 비롯한 도, 시, 군책임일군들도 친혈육의 정으로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 각 도, 시, 군들에서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이 여느때없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2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소식은 전국의 많은 일군들의 가슴을 더욱더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의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생활조건은 나날이 좋아지고있으며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충정의 맹세가 불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새로운 선전화들 창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당정책관철에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에는 드넓은 협동벌을 배경으로 《주타격방향》이라는 글발과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선전화는 올해에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혁신의 봉화를 앞장에서 추켜들고 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이해에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열의를 반영한 선전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도 창작되였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10만산대발파 진행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서 1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석화지구의 3호제방성토공사를 내밀면서 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보장하기 위한 대발파준비를 다그쳤다.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일군들은 전투현장에 나가 대발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몇달은 걸려야 한다던 도갱굴진을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끝냄으로써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3월 15일, 석화지구간석지건설장을 들었다놓는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3호제방성토공사를 보다 힘있게 내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지금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와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제방성토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의 성과에 고무되여 안산지구간석지건설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700여m의 3호제방성토공사를 진행한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와 련합기업소아래 부재공장, 선박사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의 건설자들도 기세를 늦춤이 없이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제방성토공사과제를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집중적인 선전공세를 들이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시대의 숨결을 안고 사는 마음

라선시 지경동 53인민반 김은숙동무와 그의 가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고 자기 한몸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내 조국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순결한 량심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속에는 라선시 지경동 53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은숙동무와 그의 가정도 있다.

지난 기간 김은숙동무와 그의 가정은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쳐왔으며 원군사업과 사회주의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뿐만아니라 김은숙동무는 17년간 인민반장으로 일하면서 인민반원들이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더욱 알뜰하게 꾸리도록 하고 인민반을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본보기단위로 만들었다.

—어머니조국을 받드는 길에 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리라.

이것이 김은숙동무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타는 지향이며 결심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를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시작한것이 원군사업이였다. 그의 결심을 남편인 전희균동무와 자식들이 지지해나섰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때여서 원호물자를 마련해나가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집짐승들을 기르느라 그의 손은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으며 명절날, 휴식날 하루 편히 앉아볼새 없었다. 그러나 힘들어 지쳤다가도 그는 초소의 병사들을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냈으며 원군사업에 온갖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가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인민군병사들, 혁명군대의 존엄과 위용을 과감히 떨쳐나가는 바로 이런 인민의 군대가 있어 우리 조국의 천리방선은 날로 굳건하고 인민들의 행복은 더 활짝 꽃펴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김은숙동무는 원군사업에 지성을 다하였으며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과 건군절, 전승절을 비롯한 국가적기념일마다 인민군군인들에게 자기가 기른 집짐승들도 보내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몰랐으며 원군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진행해나갔다.

20여년간 원군길을 걷는 나날에 김은숙동무는 인민군군인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불리우고 동일군들과 주민들은 그의 가정을 가리켜 원군가정이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그러한 김은숙동무였기에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인민반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남다른 충정을 바치였으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과 창전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군 하였다. 시에서 발전소건설이 한창일 때에는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건설장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도 그의 가정에서는 아들 전철민과 딸 전영희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당의 응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많은 체육기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그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날로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찬 모습앞에서 김은숙동무는 자기도 나라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희열에 넘쳐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군 하는것이다.

김은숙녀성은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한몸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느냐.》

오늘도 그는 어머니조국의 벅찬 숨결을 가슴에 안고 량심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14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이고리 모르굴로브 로씨야외무성 부상과 원동발전성 부상, 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회의, 련방평의회, 통일로씨야당, 련방공산당, 정의의 로씨야당, 자유민주당, 평화 및 통일당, 경제발전성, 지역발전성, 농업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로씨야상공회의소, 로씨야철도주식회사, 가즈쁘롬회사, 《모스또비크》과학생산련합체, 과학원 극동연구소, 리아 노보스찌통신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등 정부, 정당, 기관, 단체의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김영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라는 주제로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한 영화상영주간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17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있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기발이 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지난 65년간 두 나라가 협정의 정신에 따라 경제, 문화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로친선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깊은 관심속에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로련예술영화 《별》을 감상하였다.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도착

무대위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맞이하였다.

네팔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람 바란 야다브 네팔대통령에게 김용학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3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람 바란 야다브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과 네팔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16일 귀국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7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성금선수는 청소년녀자 44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1위를 한데 이어 추켜올리기에서 93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림은심선수와 김수정선수는 청년녀자 58kg급경기와 75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각각 금메달 3개를 수여받았다.

김효심선수는 청년녀자 63kg급경기에서, 리청송선수는 청소년남자 62kg급경기에서, 리현화선수와 정춘희선수는 청소년녀자 44kg급경기와 53kg급경기에서 각각 종합 2등을 하였다.

김영근선수와 박정주선수는 청소년남자 50kg급경기와 56kg급경기에서 각각 종합 3등을 하였다.

평양역에서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나라 선수들

독자의 편지

그 사랑에 목이 멥니다

조국보위의 길에 서있던 저의 아들이 군사임무수행중 희생된지도 어느덧 10여년이 되여오고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지나간 일들은 기억속에 삭막해지건만 오늘까지도 저의 아들이 발휘한 희생정신을 값높이 내세우며 우리 가정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동강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입니다.

영예로운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가정을 잘 돌보아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주 저의 집을 찾아와 가정살림형편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잃은 설음을 모르고 지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대할 때마다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고마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듭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낳기만 했지 그를 키워주고 내세워준것은 당의 품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속 자그마한 그늘까지도 가시여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정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보아주고있으니 어찌 제 마음이 격정으로 젖어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때없이 저의 집을 찾아와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는 문수각일군들인 정영희, 김영희동무들을 비롯한 종업원들, 장한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하면서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대동강구역연료사업소 부원 변춘희동무 그리고 동안의 인민반장들이며 정다운 이웃들…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고마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것만 같아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그 사랑에 목이 멥니다.

저는 우리 당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가슴에 안고 아들의 몫까지 합쳐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대동강구역 북수동 최영근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는 강연회가, 프랑스, 베네수엘라에서는 집회가 2월 14일과 18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정일봉명칭 울리야놉스크주 로조친선협회 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희세의 정치가, 선군령장이시다.

그이는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여왔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반도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앞으로도 조선의 통일과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격찬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광명성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가 2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로씨야, 벨라루씨, 몰도바를 비롯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나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와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부강조국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생애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인간의 성스러운 한생이였다.

벨라루씨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청년협회 위원장 올레그 노비꼬브는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꼬스젠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공세와 련이은 자연재해 등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천출위인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발현이다.

오늘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몰도바청년주체사상연구선군동맹 위원장 올레그 웨르니크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고귀한 한생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고 1964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비상히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그는 말하였다.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 위원장 와짐 꾸지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추켜들고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2월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1960년 8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으며 1964년 6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조선을 이끄시여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다. 또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인 나라로 위용 떨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쥬제 질 데 알메이다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일령도자》라는 제목으로 2월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였으며 그에 저촉되는것은 사소한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났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종합적인 음악정보기지와 개점을 앞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그이께서는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하여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그이의 거룩한 영상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가장 소중히, 천추만대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잠비아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2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탄생 72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2년전 조선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였다.

그이는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나라의 자주권, 평화수호,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시면서 전세계앞에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는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기가 선택하고 수립한 사회제도를 끝까지 수호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잠비아신문 《포스트》 2월 20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심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끝없이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놓으신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조선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도록 하심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조선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시여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미술작품전람회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으며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드리워져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 우리 인민의 뛰여난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중국의 각계 인사들과 우리 나라 대외전람총국대표단,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베이징 방초지예술쎈터 총경리 등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전시품들은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 행복한 생활 그리고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훌륭한 문화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전람회를 통하여 중국인민은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미술전람회가 중국 료녕성 영구시와 하북성 당산시 락정현에서 7일과 8일에 개막되였다.

전람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 우리 인민의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중국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 우리 나라 대외전람총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중국 하북성 당산시 락정서화원 원장 등 인사들은 연설에서 전람회를 통하여 중국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이처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바치신 령도자는 세상에 없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동지는 세계가 흠모하는 령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와 꼭같으신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조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중국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을 친선적이고 형제적인 인민으로 여기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는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데 성근하지만 비렬하고 유치한 속물들은 뻔뻔스럽게 이 구실, 저 구실을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모지름을 쓴다.

일본당국자들이 바로 두번째 부류에 속한다.

최근 문부과학성 부상이라는자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자는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그 무슨 집회라는데 나타나 극우익분자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의 생각도 같다느니, 열심히 응원하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침략사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날강도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

고노담화로 말하면 1993년 당시 일본내각관방장관이였던 고노가 정부적립장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구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의사를 표명한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한것은 력사의 엄연한 사실에 대한 죄의식과 국제여론을 두렵게 대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일이 제대로 되자면 일본은 보다 더 솔직하고 성근한 인정과 뼈저린 사죄, 충분한 배상으로 나와야 할것이였다.

하지만 최근년간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이 놀아대는 꼴을 눈여겨보면 덜돼먹기 그지없다.

골백번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빌어도 씨원치 않을 판에 과거죄행을 전면부정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면서 침략력사를 재현하려 하고있다.

그것은 고노담화를 대하는 태도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승벽내기로 떨쳐나 고노담화는 외교적실수였다느니, 성노예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이자들은 고노담화에 대해 《국가의 의사로 강제련행을 한것인지 애매하게 되여있으며 오해를 사고있다.》고 헛소리를 치면서 고노담화를 수정, 폐기하려들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유야무야하려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고노담화가 현 일본당국자들의 우경화, 군국화책동에 큰 장애로 되고있기때문이다.

현 당국자들은 고노담화를 인정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제의 침략력사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자인하는것으로 되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악착하게 추구해온 력사부정외곡행위와 재침책동이 명분을 잃게 된다고 보고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 부상이라는자가 나서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수작을 줴친것도 역시 그와 관련된다.

가소로운것은 일본반동들이 고노담화를 아예 백지화해버리기 위해 발악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의 기본적인 립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것》이라느니, 《진실을 더욱 탐구하려는것》이라느니, 《담화내용이 아니라 작성과정을 검증》한다느니 뭐니 하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고노담화의 작성경위를 다시 따져 진실성과 객관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성노예문제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궤변이다.

현실은 력사를 되돌려세우려고 발악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것인가를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극우익분자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서명활동이라는것까지 벌려놓고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계의 동조움직임과 극우익경향은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모든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지금 고노담화이전으로, 더 나아가서 일제가 아시아침략에 나섰던 지난 세기에로 되돌아가고싶어 안달이 나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고 하여 력사가 거꾸로 흐를수 없으며 강짜를 부린다고 하여 범죄의 력사가 정당화될수는 없다.

일본은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나지 않겠거든 과거의 모든 진실앞에서 성근하게 자기를 반성해야 한다.

리 철 혁

일본우익세력들에 대해 경각성을 높일것을 강조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우익세력들의 위험한 움직임에 대해 평화애호인민들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일본내각관방참여 혼다가 자기는 《아베경제학》에 대해 일본이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창설하여 중국에 대처하려면 강한 경제적뒤받침이 요구된다는것으로 리해하였다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아베경제학》의 목적이 바로 군비확장과 전쟁준비를 위해 복무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경제가 군사를 위해 복무한다는 이런 관념은 전쟁전 군국주의사상과 신통히 꼭같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우익세력들의 위험한 움직임에 경각성을 높이고 력사를 거꾸로 돌려세워 옛길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전염병피해

－웰남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5일 이 나라 정부는 트라 빈주에서 조류독감환자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H5N1형 조류독감비루스가 전파된 주가 22개로 늘어났으며 8만마리이상의 가금이 폐사되였다고 한다.

－피지에서 뎅구열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면 13일현재 뎅구열로 인한 사망자수는 11명, 그 비루스감염자수는 약 1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캄보쟈에서 조류독감으로 또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0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2명이 H5N1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그중 11살 난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나라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경제침체

영국의 한 경제단체는 11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전국적으로 소매업체들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일랜드의 금융업체인 에이아이비회사에서는 지난해 16억 8 700만€어치의 손실이 초래되였다고 한다.

총기류범죄사건발생

카나다의 방쿠버시에서 10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길가에 서있던 승용차에 마구 사격을 가하여 1명이 살해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9일 공연도중 무대가 무너져내려 25명이 부상당하였다.

10일 뛰르끼예의 중부지역에서는 달리던 뻐스가 전복되여 25명의 사상자가 났다.

【조선중앙통신】

전체 인민의 단결 호소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10일 한 상봉석상에서 전체 인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란의 국제적지위가 높아가고있으며 자기 나라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나라의 정치세력들이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는 전체 인민이 단결과 련대성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누구도 이란을 반대하여 감히 덤벼들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안전무력을 강화할 립장 천명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6일 한 연설에서 나라의 안전무력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온갖 도전들에 대처할수 있게 안전무력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주장 배격

수단외무성이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주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의 한 외교관이 수단에서 이룩된 다르푸르지역의 평화를 위한 도하협정을 비난하면서 다른 협상연단을 내올것을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다르푸르의 평화를 위한 지역적 및 국제적노력에 배치된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그와 같은 주장은 미국자체가 이 지역에서의 반정부무장활동을 더욱 부추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

요르단수상이 11일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 자기 나라의 판사를 살해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무력대고 요르단판사를 총으로 쏘아죽이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은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어떤 변명도 이 살인만행을 정당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요르단정부는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주시하고있으며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요르단국회 하원이 12일 자기 나라의 판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하원은 살인만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암만에 주재하고있는 이스라엘외교대표부 책임자를 추방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록화사업성과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시에서는 지난 33년간 연 8 200여만명이 의무적인 나무심기운동에 참가하여 1억 9 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시의 산림덮임률이 12.8%로부터 40%로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에서 록화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해 연 5억 3 000만명이 의무적인 나무심기활동에 참가하여 25억 2 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이 609만 2 000ha에 달하였다고 한다.

새우양식

웰남에서 메콩강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새우양식을 발전시키고있다.

지난해 이 나라에서는 메콩강류역에 있는 58만 8 000ha의 새우양식장들에서 약 38만t의 새우를 생산하였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그 면적을 8 000ha 더 확장하여 새우생산량을 훨씬 늘이며 양식장들에 깨끗한 물을 보장하고 오수처리, 먹이보장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웰남은 새우수출에서 세계적으로 3번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한다.

항화물처리성과

케니아의 몸바사항에서 지난해에 2 250만t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올해에는 2 300만t의 화물을 처리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2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인플레률 감소

방글라데슈에서 올해 2월에 인플레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줄어들어 7.44%에 이르렀다. 6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가스수송관건설

항의시위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시에서 8일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2 000여명의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줄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14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에는 약 1 000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국회청사를 향해 행진해가면서 당국이 로동시간을 늘이는 반면에 임금을 줄이는 등 긴축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유린왕초의 푼수없는 망동

미국은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해마다 수많은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라는것을 작성하고 그를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전횡을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200여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제멋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어지러운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꼽은 《인권실태가 한심한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미국이 곱게 보지 않는 나라들, 저들의 지배전략실현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앞자리에 있다.

이런 강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현재 저들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고 떠들고있다. 그야말로 날강도가 세계의 주인행세를 하려들고있다.

세계가 미국을 두들겨패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제멋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한 미국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미국이 자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백방으로 가리우고있다는것, 남이 알가봐 숨기고있는 미국의 인권문제는 의연 엄중하며 많은 분야에서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외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는 미국무성이 발표한 《세계인권실태보고서》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중기준을 허다하게 담고있는 《보고서》이라는것, 미국자체의 첨예한 인권실태는 밝히지 않은 《보고서》이라는것 등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선거권리 등을 실례들면서 그는 현재 미국의 수감자수(220만명)가 세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란, 에짚트, 에꽈도르, 수단등의 나라들도 미국자체의 수많은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사사건건 까밝히면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설교할 자격도 없다, 미국의 인권유린자료들을 더 많이 수집하여 폭로할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미국이 애써 감추려하는 인권보따리를 헤쳐보기로 하자.

미국에서는 새해를 경축하는 축포소리보다 불안과 공포를 주는 총소리가 먼저 울리고있다.

2013년 새해벽두를 밝히며 어느 한 살림집에서 불이 났다.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을 향하여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시작된 총기류범죄사건은 한해가 저물어가도록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만도 지난 한해 총기류범죄와 살인범죄건수가 각각 1 093건, 332건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30만명의 녀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현재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5명중 1명이 성폭행피해자들이라고 한다.

범죄행위를 방지해야 할 경찰들이 인권침해행위의 앞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거나 고문하고 강간하는 고문경찰, 살인경찰, 폭군경찰, 추문경찰이 나오다 못해 지어 식인종경찰까지 나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감옥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사실이다.

최근년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서는 3개의 감옥을 새로 건설하고 9개 다른 감옥들을 확장하는데 6억 8 500만US$를 들이밀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어느 한 시당국에서 예산적자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54개의 학교들을 페쇄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과 미국내의 많은 학교, 대학들에서 값비싸던 학비가 또다시 엄청나게 뛰여오르고 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범죄를 저지르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대학학비가 해마다 증가되여 대학졸업생 10명중 7명이 채무자로 전락되고있으며 그들은 빚족쇄를 차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에는 집없는 학생수가 120만명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빚을 진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교내는 물론 그 어느 곳에서나 감행되여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으로 되였다.

무슨 일이나 원인이 있기마련이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으며 빈궁과 가정의 파괴, 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 정신적허탈감과 타락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결국 미국은 숱한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회악순환이 법칙으로 된 범죄의 왕국이다.

수많은 침략전쟁과 세계곳곳에서 감행한 살륙만행들, 세균실험기지운영과 살인무기개발, 현시기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무인기공습과 반전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물론 저들의 동맹국들에까지 뻗친 도청 및 감시 등은 인권유린행위로 얼룩진 미국의 어지러운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저들의 이런 악취풍기는 더러운 알몸뚱이를 세계면전에 드러낸 상태에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줴쳐대고 《인권존중》의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훈시질하는 미국통치배들이야말로 철면피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다.

오늘 국제사회가 인권유린은 미국이 독점하고있는 《특허》이며 지구상의 가장 엄중한 인권교살국은 바로 미국이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제 나라에서 성행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들을 막지 못하는 주제에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인권유린》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못된짓만 하면 제스스로 망하는 법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며 내정간섭과 전횡을 일삼을수록 저들이 묻힐 땅을 그만큼 앞당겨 파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김 철 룡

ㄱ-4104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